

소 명 PART 2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교토교구 주교 바오로 오즈카 요시나오

1. 사제의 해를 보내면서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발걸음을 내 딛이기 시작한 21세기 첫 번째 10년을 마무리하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토교구의 「공동 선교 사목」추진 10년의 성과를 음미하고 더욱 더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교회의 현상을 재점검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토교구는 작년의「소명 촉진원년」에 이어서 올해도「소명」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와 함께 행동해야겠습니다. 마침 작년 6월부터 성요한마리아 비안네사제 서거 150년을 계기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제정된 「사제의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교를 포함한 사제들은 사제직이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며 이처럼 자주적이며 자유로이 임하는 소명은 달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제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 놓으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하느님 백성의 목자로서 충실히 생애를 바칠 결의를 새로이 다짐 합니다.

2. 마리아의 소명 체험

소명의 은총을 완전히 실천한 사람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자기 소명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마리아가 천사의 예고를 받았을때의 반응(루카 1·26-38)을 돌이켜 봅니다. 그것은 소명이란 것을 받아 이해하고 승락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며 신앙인이라면 누구나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분의 말씀이 차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마리아는 「주님께 은총을 입으신 분」이라고 천사의 인사를 받고 마리아가 「성부」와 함께 한다는 축복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마리아가 낳으시게 될「성자」에 대해 말씀을 듣고 이 기적이 실현하도록 마리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령」의 움직임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마리아의 반응이 「당황함」 「고찰」 「승락」으로 순화되어 나타납니다.

3. 「성부」의 뜻을 천사를 통해 예고 받은 마리아의 놀람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전했다. 『기뻐하십시오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마리아는 이 말에 놀라 도대체 이 예고는 무슨 뜻 인지를 깊이 생각했다.」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분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마리아의 새로운 이름이며, 마리아가 받을 소명의 표시입니다. 성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속죄를 통해 인간에게 줄 은총을 하느님 아들의 어머니가 될 역할을 완수하는 마리아에게, 속죄한자의 첫예물로서 맨 먼저 완전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고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신분이 낮은 주님의 종」(루카 1·48)에게 하느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어 찾아 주신 것에 대해 당황하며 놀랍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함께 가까이 해 주시는 것 외, 하느님의 내재성과 피조물이 갖는 하느님과의 격차와 하느님의 초월성까지 모두 다 인식합니다. 이것은 소명에 응하기 이전에 빠뜨릴 수 없는 준비입니다.

더우기 우리들은 자신이 하느님의 피조물임을, 한편으론 그 존재의 미약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 중에 두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두번째는 그 은총에 의해 하느님께서 「특별한 요구」에 대한 마리아 자신의 응답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들은 하느님과 대화하기를 바라면서도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면 놀라움추려드립니다. 그것은 답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 「성자」를 잉태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마리아의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전한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라고 찾아온 목적과 그 사명의 중대함을 밝힙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천사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고 깨달은 마리아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마리아에게 처해진 상황으로서는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사명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사명 수행의 방법은 인간적으로는 예견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약혼을 한 처녀에게 자유는 없을지라도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할 것을 무조건 따르려고 부르심에 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천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라고 한 질문은 라틴어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란 뜻으로 마리아의 적극적인 질문에서 벌써 받아 들이려는 마음이 그 자세에 배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좀 더 구체적인 지시를 청했습니다.

5. 「성령」의 움직임에 자신을 맡기는 마리아의 위탁

약속의 성자를 잉태하기 위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인간이 이해 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느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해결을 천사는 알려 줍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 와 성부의 힘으로 당신을 감싸 안을 것 입니다.**」 약혼 중의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게 될 아들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의 아들**」 이 라면 이 기적이 실현되기 위해 성령의 힘이 부여 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어떤 혼인관계도 지켜주고 동시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란 하느님의 절대적인 의사를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리아는 자신이 하느님의 계획 앞에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는 오로지 자비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고 당장 승락합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지소서**) 히브리어로 「**아멘**」 (그대로 이루어 지소서) 라고 대답한 마리아의 「**예**」는 성육신한 말씀의 「**예**」 (히브리 10·5~7)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놓는 인간의 자유이며 책임있는 「**예**」의 선택입니다.

6. 나의 소명에 「아멘」 인생에 「아멘」

마리아의 천사 예고의 체험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뜻을 알고 따를 때에 하는 「아멘」이야말로 모범적인 모델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 자체는 인간의 보편적인 일입니다. 성부는 그 일에 인류의 구원을 맡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물의 깊은 의미를 나타내고 일상생활에서의 여러가지 선택에 있어서 식별과 방침에 의한 보증을 인간에게도 초래합니다. 성령은 성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수 있도록 힘을 빌려주고 말씀대로 살게하며 현실에 딱 들어맞게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명 수행은 평탄한 것이 아니라 큰 고통과 박해가 따랐습니다. 시므온에게 「**당신 자신도 겹으로 마음을 갈기 갈기 찢길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듣습니다. (루카 2·35) 마리아가 받은 사명은 희생과 곤란중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날의 생활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으로 「**인간은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요셉의 소명 체험

하느님은 마리아에게만 구원사업을 맡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마리아의 소명을 지킨 요셉의 소명 체험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요셉은 약혼중의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이 결혼을 파혼 해야할지 어쩔지를 고민 중에 천사가 나타나 모든 일이 하느님의 계획임을 알려 줍니다. 요셉은 이 때 대단한 일을 알게 됩니다. 「요셉아,하느님이 구원사업을 위해 간택 한 자가 마리아 만 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느님이 부르신 것은 마리아 뿐만이 아니라 요셉 너도 함께다.」 라고 성모 마리아와 태어나실 성자를 지킬 「보호자」의 역할을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깨닫고 이것을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셉은 위기와 위험을 넘어 그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완수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후 요셉은 꿈에서 가르쳐준대로 히로데왕의 살해를 면하기 위해 한동안 이집트로 피난을 가 가정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마음에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늘 충실했습니다. 요셉은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이 성공할지 어떨지의 보증을 구하지 않고 눈 앞의 문제에 몸을 맡기고 주어진 과제에 열심히 살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8. 하느님의 구원 사업과 소명의 역할

하느님은 구원사업을 실현 할 때 인간에게 협조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서는 구원의 역사를 하느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 서로 어울려 있는 것이 소명의 역사라고 진술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모세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성서에 쓰여 있는 각각의 소명은 두가지의 자유, 다시 말해 하느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서로 만남에서부터 생깁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느님의 봉사자로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이리하여 신앙의 여로가 시작됩니다. 「나를 따르고 싶은 자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 16·24) 이 길은 곤란과 시련이 함께 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자신의 십자가로서 지고 갑니다. 소명의 길은 오히려 그것이 하느님과의 친숙함을 더욱 더 깊이하고 하느님의 원하심에 늘 재빨리 자신을 내 놓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단련 시켜 줍니다.

9. 자신의 소명을 교회 안에서 생각합시다.

마리아의 소명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특히 각자의 소속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생각해 봅시다. 주는 「어떤 이들은 사도로,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나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에페소 4·11~13) 개개인의 소명은 교회 안에서 생겨 성장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총에 따라 (에페소 4·7) 교회에 연결되어 결실을 맺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 백성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연관이 생깁니다. 사제,수도자,신자는 「천교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일하도록 부름을 받아 서로 보충할수 있도록 다양한 카리스마와 봉사직을 받습니다.

10. 서로 소명을 살리는 공동체

소명은 하느님이 인간을 자유로이 자신에게로 다가오게하는 은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는하나 교회의 일이기에 공동체는 우리들의 신자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한사람 한사람의 소명을 찾아 내어 그 소명을 살아 가도록 하느님께 협력하는 소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소명은 그 일어남이 개인적이고 독자적인 일이라 해도 반드시 남의 소명을 성장시켜 발전시키기 위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소명도 공동체의 은총으로 발견하고 공동체는 그것을 교회를 위해 살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제도 신자도 교회 공동체 멤버의 고유의 소명을 관대히 인정하고 서로간에 신뢰와 사랑으로서 일치한 복음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11.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소명

신자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여러가지 영적생활과 신자 활동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자라는 특징은 「이 세상에 있어서의 생활」에 있습니다만 신자는 「영적생활」과 「이 세상에 있어서의 생활」이란 두가지의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가정과 직장, 사회적 역할, 시민으로서의 책임, 문화 활동, 등의 모든 생활의 영역이 하느님의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여러 분야가 창조주이신 성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이 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신자는 인류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을 마음에 두고 자신이 받은 소명에 응답하며 지상에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12. 젊은이들에게 메시지

젊은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파하려는 여러분의 젊음, 관대한 열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 여러분들은 불안정한 사회정세에 둘러싸여 자신을 잃어버린채 불안과 실망속에서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젊은이 여러분은 그 감수성에 의해 현대세계의 부정의, 불평등, 폭력, 또 환경과피 등에 대한 분노에 민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진리와 정의를 갈망하고 있는 세계의 호소를 듣고 거기서 자신의 소명의 가능성을 찾으십시오. 교토교구에서는 해외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의 기획이 있습니다. 여러가지에 도전하여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 일인지를 몸소 느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소망과 계획을 배신하는 일은 하시지 않으시며 반드시 존재 의의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삶에 대한 기쁨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13. 소명을 위한 기도

참 소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간이 만들어 낼수 있는 일이 아니며 더우기 그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성장을 계획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자신의 힘으로 받거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 강제로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행하는 소명을 위한 기도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모르지만 소명을 받은 자에게 특별한 은총을 바라고 그 분들이 자신의 소명을 받아 응답 할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마태 22·14) 라고 한 것은 하느님이 행하는 「선택」이란 인간이 현재 갖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 행해지는 하느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명을 위한 기도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낀 사람들이 망설임과 당황 속에서도 부르심을 순수히 받아 들이고 용기를 가지고 응답할수 있도록 하느님의 선택(소명)을 청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소명의 테마로 걸음하는 우리들이 신앙에 기인한 자신의 소명을 새로이 발견하여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고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토교구의 여러분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교 신조」 올해도 복음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제의 해 2010년 1월 1일

주의 모후 성마리아의 축일

